

글 쓰는 전문 직업인 조선의 사관

1. 누구도 볼 수 없었던 사관의 기록

조선의 사관은 사헌부·사간원·홍문관의 관원과 함께 부정과 부패가 없는 청직으로 인식되었다. 품계 상으로는 말단이었지만, 한 번 제수되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할 정도로 누구나 선호하는 직책이었다.

대간에게 폄하되면 관료생활을 못하는 것으로 그치고, 왕에게 미움 받으면 귀양을 갔지만, 사관에게 한 번 폄하되면 후세에 영원히 전해져 비판되거나 칭송되었다. 이런 점에서 군주를 비롯하여 조정의 모든 관료들은 사관의 기사 내용에 대해서 민감하였으며, 왕도정치에 벗어나는 정책 수립이나 집행, 유교적 명분에 어긋나지 않으려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사관은 도덕적 객관성을 바탕으로 '술이부작(述而不作)'의 정신에 따라 보고 들은 바를 기록으로 남겼다. 후대에 교훈을 전한다는 믿음과 확신을 바탕으로 춘추필법의 역사의를 견지하였다. 사실을 기록하면서 더하거나 덜지 않았으며,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직필정신을 고수하였다. 기록 정신이 철저하였던 만큼, 사관의 기개 역시 하늘에 닿을 정도였다.

사관이 작성한 기록(사초)은 조선왕조의 국정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조선왕조실록』 편찬의 기초 자료였다. 『조선왕조실록』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사이지만 조선시기로 본다면 당대사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물론이고, 경제와 사회, 문화, 군사, 외교 등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배층 관료들의 관심이 매우 컸다. 권력을 쥔 자들에 의해 사관의 직필을 방해하려는 사례가 나타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록에는 군주의 일거수일투족은 물론이고, 조정의 관료, 향촌의 유생들까지 시시비비(是是非非)와 연관된 일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내가 무서워하는 바는 하늘과 사관뿐'이라는 군주의 고백은, 이들의

기록이 어느 정도 상세하고,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군주와 대신들이 권력의 남용을 자제하고 유교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 정국을 운영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국정의 모든 시행사를 기록으로 남겼던 사관의 기사 활동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의 하나가 사관의 기록이었던 만큼, 이들의 활동은 서술 퍼런 요즘의 언론 활동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즉 실록은 만대 이후를 기다리는 역사였으며, 왕조차 함부로 볼 수 없었던 역사의 기록, 당대의 예리한 언론활동의 하나였던 것이다. 그런데 실록에 수록된 내용은 해당 군주대의 모든 역사 사실은 빠짐없이 기록된다는 것이다. 즉 실록의 편찬은 철저한 비밀주의였지만, 기록된 내용에는 어떠한 비밀도 없다는 사실에서 더욱 주목된다.

2. 까다로운 사관의 임명

사관은 문신으로서 재(才)·학(學)·식(識) 삼장지재의 조건이 요구되었다. '재'란 역사 서술 능력을 의미하며, '학'은 해박한 역사 지식, '식'은 현실을 직시하여 공정하게 시비포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조선 유교 사회에서 문과의 급제여부는 가문과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의 하나였다. 그런데 사관 역임자들은 반드시 문과에 급제해야 했다. 문과 급제자들이 당대 학문을 대표하는 인사들이었던 점에서, 사관은 유학자로서의 소양과 학문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었던 것이다. 집안을 살피 흠이 없는 사람, 즉 친가와 처가 쪽에 문제가 없어야 했다. 따라서 조상 중에 부정 축재를 범했거나, 서자 출신이 있으면 임명되지 못하였다.

성종 24년 조위(曹偉)가 '사관을 선발할 적에는 마땅히 박학하고 글 잘하는 선비를 선발해야 할 것인



데, 옛 풍속에 구애되어 만약 가문이 한미하거나 가난한 자이면 비록 삼장지재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백방으로 피하려고 피하고, 본관(예문관)에서도 기꺼이 천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라고 논한 것에서 보듯이, 출신 역시 상당히 고려되었다. 종종 4년에는 부정축재한 관리 허탕(許宕)의 손자 허안국을 승정원에서 가주서(假注書)로 삼고자 한 일이 있었다. 이때에도 잘못된 인사라고 하면서 승정원에 대한 추고 논의가 있을 정도였다. 따라서 사관은 내외 4조를 살핀 뒤, 조상은 물론,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절대로 제수되지 못하였다. 미혼자가 사관에 임명되지 못하는 것은 후에 결혼했을 경우 처가 쪽에 하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적당한 인사라고 판단되어 제수할 때도 신중을 기하였다. 사관의 결원이 생겨 임무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시험을 치른 뒤 보충할 정도로 엄격하였다. 마음이 사투하다는 이유로 사관에 적당하지 않거나, 사필은 아무나 잡는 것이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 잡아야 한다는 표현처럼 평소의 마음 자세와 정직성도 사관 임명 시 요구되는 조건이었다. 그리고 평상시 동료 간의 원만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였는가의 여부 역시 자격 조건의 하나였다. 이와 같이 엄격한 조건을 갖추어 제수되었던 만큼 사관들은 궁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다. 문치주의를 지향하는 조선왕조의 중추적인 관료였으며, 양반관료체제를 유지하는 우수한 엘리트 계층이었던 것이다.

3. 사관이 만든 언론(言路)

정치 행위가 벌어지는 모든 자리에 참석하여 국정운영의 사실을 기록하였던 조선의 사관은, 오늘날 정치 현장에서 생생한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사의 기자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기자 중에는 청와대 출입 기자가 있는가 하면, 국회, 여당과 야당의 출입 기자, 사회부 기자, 교육 및 의학 전문 기자 등 역할과 임무가 다양하고 상당히 전문적이다. 각각의 역할과 임무의 중요성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의 꽃이라고 한다면 정치부 기자가 아닐까? 이들의 활동 현장이 한국현대사가 전개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정치부 기자가 작성한 기사가 신문의 1면

에 처리되는 요즘처럼, 조선의 사관 역시 정치의 현장에서 최고의 기사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던 것이다.

조선의 통치 이념이었던 유교 사상은 역사 기록을 중시하였다.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유교적 답변은, 역사를 통해 후대의 평가를 받고 동시에 현재의 삶 속에서 후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었다. 이러한 역사의식은 종교적 경건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신을 상정하지 않는 대신 종교적 경건성이 담긴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절대 권력자인 왕을 견제했으며, 그 방편의 하나로써 진행된 대규모 국책 사업이 사관의 사초를 바탕으로 실록을 편찬하는 것이었다.

역사 기록을 중시하였던 유교에서 바라보는 역사란, 지나간 일의 선악과 시비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이 평가를 현재와 미래의 교훈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강했다. 그런데 시간의 고금을 막론하고 공정한 역사 기록을 방해하는 것은 권력이었다. 이때 권력에 굴하지 않고 공정하게 역사를 기록하려는 자세가 유교적인 역사의식의 기본 정신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유교적인 역사의식에 의한 평가의 영원성은 절대 군주인 왕에게조차 대단한 위협이었다. 자신의 행동거지 일체가 기록되어 후세에 전해진다는 사실에 초연할 수 있는 군주는 없었기 때문이다. 관료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유교적 가치 기준을 근거로 충신 또는 역신이었는지, 난국을 바로잡은 명재상이었는지, 재물만 축적한 탐관오리였는지가 정확하게 평가되었다.

대간에게 탄핵을 받으면 더 이상 관료 생활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관이 작성한 사초에 비판받게 되면 현직은 유지할 수 있으나, 후세에 영원히 전해졌기 때문에 대간의 탄핵보다 강한 영향력을 끼쳤다. 권력의 남용을 자제하고 유교적인 가치 기준에 준거하여 정국을 운영하고자 하였던 것은 사관의 사초를 우려한 까닭이었다. 군주와 관료들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였다는 점에서 사관의 기사 활동과 실록 편찬은 현실 정치의 지향점을 제시하였던 언론사 기자들의 활동과 일치하며,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론이었던 것이다.

